

번호: I-6

제 목	국 문	사회심리적 작업 특성이 작업관련 증상호소율에 미치는 영향			
	영 문	The effect of soci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work on work related symptom complaint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이경용, 조영숙(산업안전보건연구원)			
	영 문	Kyung Yong Rhee, Young Sook Cho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KISCO)			
분 야	보건관리()	발 표 자	일반회원(V)	발표 형식	구 연()
	역 학()		전 공 의()		포스터(V)
환 경(V)					
진행 상황	연구완료(), 연구중(V) -> 완료 예정시기: 1999년 12월				
<p>1. 연구목적</p> <p>근로자의 건강은 일반 인구의 건강과 달리 작업장에 존재하는 특수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 동안 물리, 화학적 인자에 의한 근로자 건강 영향을 알아본 연구는 많이 있지만, 사회심리적 인자가 근로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근로자의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작업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계획되었다.</p> <p>2. 연구방법</p> <p>1) 조사대상: 1997년도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의한 제조업체 종사근로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산업 중 분류, 사업자 종사자 규모, 16개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2단계(1단계: 사업장, 2단계: 근로자) 표본추출방법을 이용하여 1,587개소에 종사하는 8,218명의 근로자를 분석에 이용하였다.</p> <p>2) 조사내용</p> <p>(1) 작업(환경) 관련 증상호소율: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한 지난 2주간 신체불편함에 대한 경험과 작업(환경) 관련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p> <p>(2) 사회심리적 작업 특성: 작업과 관련된 제반 특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작업강도, 작업속도, 작업 속도 결정권한, 작업공간, 작업집중 요구도, 작업자세의 편리함, 물리적 작업환경, 업무요구도, 업무자율성)</p> <p>(3) 일반적 특성: 성, 연령</p> <p>(4) 직업적 특성: 작업시간, 교대제 근무여부, 직종, 업종, 사업장 규모</p> <p>3) 자료수집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개별 면접조사</p> <p>4) 분석방법: 작업(환경) 증상 유무에 대한 독립성 검증(카이제곱 검증), 증상호소율에 대한 분산분석, 다분류 분석</p>					

3. 연구결과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2주 동안 신체의 불편함을 경험한 경우 해당 증상이 작업과 관련이 있는지와 작업환경과 관련이 있는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알아본 결과 총 8,218명 중에서 작업과 관련이 있는 증상을 호소한 경우는 20.5%였으며, 작업환경과 관련이 있는 증상을 호소한 경우는 16.1%였다. 이러한 작업(환경) 관련 증상호소율은 성별 차이를 보여 여자 근로자에게서 더 높았다. 연령별 작업(환경) 관련 증상호소율 분석 결과 작업환경 관련 증상호소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작업 관련 증상호소율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특히 20대 이하의 경우에서 높은 작업환경 증상호소율을 보였다. 주간 작업시간 집단별 분포에서는 작업(환경) 관련 증상호소율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작업시간이 길수록 작업(환경) 관련 증상호소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응답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의 규모별 작업(환경) 관련 증상호소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규모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증상호소율을 보였다. 직업과 업종별 작업(환경) 관련 증상호소율에 대한 분석 결과, 시장판매원 직업에서 가장 높은 작업관련 증상호소율을 보였으며, 작업환경 관련 증상호소율의 경우에는 도서관사무원에서 가장 높았다. 응답근로자의 경력에 따른 작업(환경) 관련 증상호소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별 작업(환경) 관련 증상호소율의 분포에서 담배제조업과 목재나무제조업이 가장 높은 작업관련 증상호소율을 보였으며, 작업환경 관련 증상호소율은 담배제조업에서 가장 높았다. 교대제 근무여부에 따른 작업(환경) 관련 증상호소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심리적 작업특성 중에서 작업강도, 작업속도, 작업공간, 작업집중 요구도, 작업자세, 물리적 환경, 업무요구도 등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작업(환경) 관련 증상호소율에 차이가 있었다. 작업강도가 높고, 작업속도가 빠르고, 작업속도에 대한 결정권이 없고, 작업공간이 비좁고, 작업집중 요구도가 높고, 작업자세가 불편하고, 물리적 환경이 열악하고, 업무 요구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작업(환경) 관련 증상호소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심리적 작업 특성 중에서 업무자율성의 경우에는 작업(환경) 관련 증상호소율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고찰

본 연구는 근로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 직업적 특성 및 사회심리적 작업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작업(환경) 관련 증상호소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제반 특성들을 조사하여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사회심리적 작업특성과 근로자의 작업(환경) 관련 증상호소율간에는 관련성이 있어 제 특성에 따라 증상호소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일반적 특성과 직업적 특성에서는 성, 직업, 산업, 규모 등에 따라 작업(환경) 관련 증상호소율의 차이를 보였고, 경력과 연령에서는 작업(환경) 관련 증상호소율 중에서 한 가지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영국의 경우 가구단위의 조사를 통해 작업관련 증상호소율을 조사하고 있는바, 1995년 조사 결과 6.8%가 작업관련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본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수치로서 근로자의 작업관련 증상호소율이 영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현저하게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이원변량 분석에 한정되어 있어 향후 다변량분석을 통해 관련된 제반 요인들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을 질병 분류 기준에 의해 계통별로 구분한 후, 각 질병별 증상호소율이 관련 요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심층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사회심리적 작업 특성은 그 동안 작업관련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외국에서 많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스트레스 이외의 일반적인 신체 이상 증상과 사회심리적 특성간의 관련성을 알아본 연구는 국내의 경우 찾아보기 힘든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사회심리적 작업특성과 근로자의 작업(환경) 관련 증상호소율간의 관련성에 대한 향후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